

책 만지는 일에 한결같은 안양 '터줏대감'

책방 주인 37년째인 대동서림 전영선 사장

대동서림은 안양의 터줏대감이다. 안양역 앞 지하도에는 길이 갈라지는 곳마다 대동서림 가는 길을 표시한 이정표가 붙어 있고, 지나가는 이에게 길을 물으면 자기 집이라도 가르쳐 주는 듯 천연덕스럽다. 대동서림의 대표인 전영선 사장(57)이 들인 37년 세월의 공이다. 하지만 제아무리 크고 대단하더라도 한낱 지방서점에 불과한 대동이 서울에까지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출판사나 책에 대한 태도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기 때문이다.

68년 대동서림이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은 이후 30년 동안 5평 혹은 7평씩 증축해서 지금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매장면적 300여평, 도매부까지 합치면 500여평의 대형서점으로 성장하기까지 전사장은 30년을 하루같이 매순간 최선을 다해왔다.

결제일마다 벌어지는 '자장면' 파티

대동서림의 책 대금 결제일은 출판사 영업인들에게 특히 유명하다. 책 대여점이 늘어난데다 불황의 여파로 형편이 어려웠던 지난 1월 7일 결제때에도 소문대로 대동서림 사장실에서는 '자장면' 파티가 벌어졌다. 수년 전부터 지방서점을 도는 100여 명의 영업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대동서림의 전통이다.

"고생하던 시절에 지방 출장을 가게 되면 돈이나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끼니를 거르게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보잘 것 없는 음식이지만 끼니나 잊지 마시란 배려입니다."

대동서림의 성의있는 태도는 결제 관행에서도 드러난다. 50만원 이하는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이상은 어음으로 결제한다. 출판사가 잘돼야 서점이 잘된다는 평소 생각에 따른 것이다. 작은 규모의 출판사 경우는 이 현금이 출판사 운영에 단비같은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서점과 출판사가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없는데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전사장은 직원들에게도 안 팔린 책은 반품하면 그만이라는 생각보다 좋은 책을 못 팔게 되어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도록 가르친다. 여기에는 어린 시절부터 가져

온 책에 대한 신뢰와 공경이 깔려 있다. 중학교를 마치고 상경해 다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공부에 목말라 있을 때 전사장에게는 학교보다 책이 가까이 있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책이 어떤 학교보다 큰 학교임을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직책을 좋아하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책과 가까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마을문고 지부장을 기꺼이 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양교도소 교화위원을 맡아 교도소내 새마을문고와 '독서대학'을 설립, 1년에 20권 이상 책을 읽은 재소자 502명에게 수료장을 주었다. 93년 재소자들이 직접 쓴 《책 속에서 새 인생을》이라는 독후감집을 발행했던 것은 지금도 마음 뿌듯한 보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학교를 설립해 교육 사업에 헌신하고자 생각했지만, 학교 교육이 담지 못하는 것을 책이 담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재 삶에 아주 만족스럽다.

"책을 만지는 직업처럼 좋은 직업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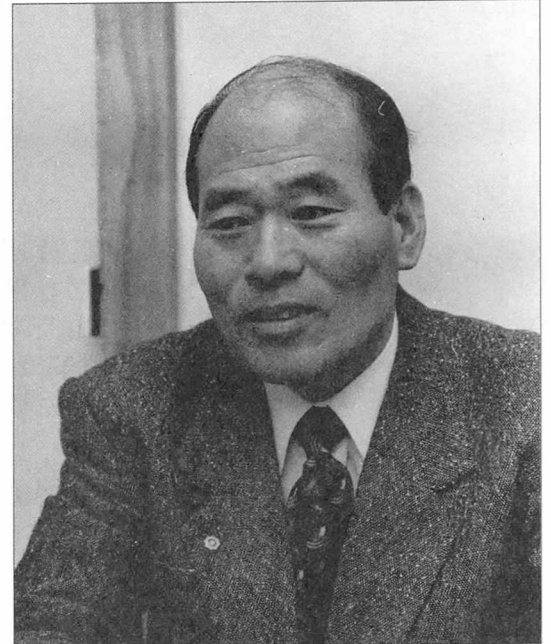
유난히 사내 커플도 많아

61년 경기도 포천 백의리에서 지금 돈 7만원을 밑천으로 합성 문짜 위에 책을 펼쳐 놓고 서점을 시작한 그는 지금까지 '책 만지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지금의 아내도 옛날 대동서림의 고객이었다. 대동서림에 유난히 사내 커플이 많은 것도 이런 생각 때문이다. 총 70여명의 사원 가운데 여태까지 8쌍이 이미 결혼했고 현재 5쌍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전사장은 사원들이 서점을 지나가는 직장인으로 여기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결혼한 여사원을 꺼리는 다른 서점과는 달리 출산휴가까지 주면서 근무를 장려하고 구내식당을 마련해 점심과 저녁식사를 제공한다. 사원들의 소규모 활동에까지 신경을 써 얼마전 도매부 지하에 풍물패 동아리방을 마련하기도 했다.

5년마다 한번씩 갖는 창립기념총회에는 30여년 동안 이 서점을 거쳐간 350여명의 사원이 모인다. 이들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는 새로운 서점을 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양과 경기도 인근에 분가시킨 서점만도 어느새 10여군데. 예전에

안양의 터줏대감인 전영선 사장은 61년 서점을 시작한 이후 현재 연간 매출액 100억 규모로 성장할 때까지 책과 함께 걸어왔다. 책 만지는 직업을 최고로 생각하는 전사장은 '책방주인'을 천직으로 알고 산다.



전영선 사장.



매달 결제일이면 전국 각지의 영업인들과 '자장면 파티'가 벌어진다.

사원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다 사장님이다.

"평촌에 대형서점이 생겼다고 직원들이 걱정을 하더군요. 하지만 서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종업체를 경쟁 상대로만 여기는 다른 장사꾼과 서점 경영인은 달라야지요."

전사장은 요새 부쩍 늘어난 경박한 출판 풍조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책의 가치가 정가에만 있지 않다는 믿음 때문이다. 출판인들도 한꺼번에 얻으려 하기보다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루길 바란다.

"서점 역시 단지 책이라는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편안히 책을 보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년 천생 책방주인'이라고 했던 친구의 말

을 운명의 지침으로 삼은 지 올해로 37년. 대동서림이 연간 매출액 100억 규모의 대형출판사가 되기까지 전사장의 관심은 오로지 책과 서점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사무실 벽에 걸려 있는 경구를 앞으로의 계획으로 대신한다. "지금 이 곳이 나에게 최선의 장소요, 지금 이 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요, 지금 이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인연이다."

원대한 계획을 따르기보다 소신껏 하루하루를 채우며 서점을 한뼘씩 넓혀왔듯 하루하루에 충실함으로써 독서문화도 한치씩 자라게 되리라는 뜻이다.

— 이현주 기자